

#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들

둘째 천사의 기별 연구



현대진리연합운동

[www.PTUM.org](http://www.PTUM.org)

# 목 차

## 서 문 \_ 3

- 제 1 과 **바벨론의 기원** \_ 5
- 제 2 과 **바벨론의 정신** \_ 15
- 제 3 과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들** \_ 23
- 제 4 과 **반역의 결과가 나타남 - 노아의 때** \_ 32
- 제 5 과 **바벨탑 건설자들** \_ 42
- 제 6 과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 \_ 51
- 제 7 과 **룻의 생애에서 배울 교훈** \_ 60
- 제 8 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 \_ 68
- 제 9 과 **바벨론에서의 구원** \_ 77
- 제 10 과 **고대 바벨론과 현대 바벨론** \_ 87
- 제 11 과 **불법의 비밀** \_ 97
- 제 12 과 **바벨론의 독주를 마신 개신교계** \_ 106
- 제 13 과 **공중을 날아가는 둘째 천사** \_ 115
- 13째 안식일 특별연금 **외방선교사업** \_ 124

# 서 문

지난 기를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연구해보았다.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종교적 대각성을 일으켰다.

“월리암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재림교리를 전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각성시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일해왔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교회의 참된 희망과 깊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필요성을 자각시켜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힘썼다.”(쟁투, 375)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첫째’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듯이, 그 이후에 일련의 기별들이 연속하여 주어질 것이었는데, 그 ‘첫째’ 천사 다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이다.

이번에는 바로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별들은 순서대로 연속되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에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닳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초기, 256)

우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두 기별, 곧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단계지만, 처음 두 단계가 빠진다면, 마지막 단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始終)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르었다.”(초기, 258)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시련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세 단계 중에 두번째 단계로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편집자

# 바벨론의 기원

[연구범위]

각 시대의 대쟁투 531-538; 부조와 선지자 63-70.

기억절 :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2-14)

서론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16).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합 3:6; 사 57:15; 약 1:17). ...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부조, 33)

## 혼잡의 기원

1. 바벨론의 뜻은 무엇이며 그 최초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사단의 반역이 있기 전에도 하늘나라에 혼란스러움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창 11: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계 12:7-8)

계14:8.

---

“바벨탑으로부터 기인된 바벨론이란 말은 혼잡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언의 신 4권, 232)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 만하였고 무아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부조, 34)

**2.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목적은 무엇인가? 그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는가? 피조물인 사단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있는지를 로마법왕권의 역사에서 찾아보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3-14).

겔 28:14-17; 사 40:25.

---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부조, 36)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써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엎으려고 하였다.”(부조, 69)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쟁투, 446)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하려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코자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초기, 65)

## 하나님의 율법

### 3. 하나님께서는 지적 존재자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제정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반역자 루스벨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어떤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시 119:92-93)

시 119:77, 143.

---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부조, 42)

“사단은 점점 반역적 행동이 대담해져서 창조주의 율법을 깔보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이 율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천사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들 자신의 뜻을 따를 자유가 있도록 그냥 둘 것이요, 또 율법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그

것을 폐지하는 것이 자기 입장의 최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환경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으니 그는 율법을 제정하셔서 그 율법이 당신과 동등이 되게 높이셨던 것이다. 천사들의 행복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있었다.”(살아, 18)

#### 4. 천사들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어떤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인류에게 행복이 되는지를 설명해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출 20:3-17)

“율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긴요한 것이다. 영감의 말씀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165)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께서 친히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응용하신,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한 자유의 율법을 어떤 인간도 짊어질 수 없는 속박의 멍에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고통스러운 멍에로 여기는 사람은 죄인이며 율법의 교훈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롬 8:7)다.’”(1기별, 218-219)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데 달려있다.”(부조, 52)

## 유혹과 타락

**5.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어떤 특별한 두 나무를 만드셨는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에서 자비와 공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을 찾아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창 2:8-9)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시 89:14)

시 101:1.

“생명나무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나무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였다. 생명나무는 영생케 하는 힘을 가졌다. …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던 것은 이 나무의 생명을 주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 능력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에게로 전수되어 내려왔다(리뷰 1897. 1. 26).”(화이트주석, 계 22:2)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부조, 48)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적으로 삼아진바 되었었다.”(부조, 53)

**6. 사단은 하와에게 어떤 말로 유혹하였는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은**

## 밀한 동기와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했던 기도(企圖)와 비교하여 보라. 이런 사단의 책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가 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5)

---

“루스벨은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거룩한 존재자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신임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묘하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위는 눈치채지지 않았다. … 그는 반대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였다. 그는 교활하게 …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인 양 보이게 하였다.”(부조, 38)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 먹는다면 그들은 더욱 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하였다.”(부조, 54)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바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부조, 54-55)

###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

7.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자가 접근할 것을 아시고 선악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시를 하셨음을 알 수 있는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창 3:2-3)

---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부조, 53-54)

“동산 한 가운데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다. 이 나무를 두고 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살아, 24)

“하와는 감탄과 호기심을 가지고 금단의 나무 열매를 주목하고 있었다. 하와는 나무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단호하게 저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 추론하고 있었다.”(살아, 32)

**8.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물론 만지지도 못하게 추가적인 기별을 주셨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십계명 외에 어떤 특별한 기별(올레)을 준수하기를 원하시는가?**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레 20:25-26)

레 11:2, 9; 신 14:4.

---

“하나님께서서는 이 말세에 우리에게 비치도록 건강 개혁의 빛을 허용하셨으

며,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사단의 시험은 식욕에 방종하고 성향을 만족시키며, 부주의하게 우매한 생활을 하도록 인간 가족을 이끌기 위하여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3증언, 560)

“하나님께서서는 건강개혁이 마치 우리의 손이 몸에 연결된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과 더불어 밀접히 연결된 것임을 보여주셨다. 이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만큼 육체와 도덕적 타락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없다. … 누구든지 먹고 옷 입는 일에 있어서 도덕적인 의무를 어기는 자들은 영원한 이익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를 어기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만일 우리가 자만과 식욕에 방종하고 또한 세상에 동조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은 유행의 옷을 입고 몸을 약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그분을 알기 위하여, 317; 리뷰, 1886. 5. 18)

“이 규례(율례)들은 분명히 십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 이 율례들은 도덕률의 힘에 의해서 강화되었고 도덕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였다(사인즈 1875. 4. 15).”(화잇주석, 출 20:1-17)

## 바벨론의 독주

### 9. 영혼불멸설의 기초는 언제 놓여졌는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

---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의 존재는 큰 기만자뿐이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러나 오로지 사단의 권위에 기초를 둔 이 주장이 그리스도교계의 강단에서 반향되고, 마치 우리의 첫 조상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이 인류의 대다수가 그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겔 18:20)고 선언하셨지마는 범죄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쟁투, 533)

“현대 강신술과 여러 형태의 고대 요술과 우상숭배는 모두 죽은 자와의 교통을 필수 불가결의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를 기만한 다

음과 같은 최초의 거짓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삼이니라’(창 3:4, 5). 그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거짓에 기인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모두 다 거짓말의 아비에게서 유래된 것이다.”(부조, 685)

## 10. 오직 누구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며, 이것은 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인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딤후 6:15-16)

출 3:14(상단).

---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1증언, 344)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우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계 14:8, 17:2 참조).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가증한 독주를 마시게 된다.”(쟁투, 536-537)

## [상고할 말씀]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하

려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변치 않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코자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하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짓밟고 자신의 권위로써 일하는 옛새 중 한 날로 그날을 대신해 버렸다. 온 열방은 짐승을 따랐으며 그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감찰하고 있다. 교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흠집을 냈으나, 나는 그 흠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재건될 때가 오는 것을 보았고 무너진 데가 보수되는 것을 보았다.”(초기, 65)

# 바벨론의 정신

[연구범위]

각 시대의 대쟁투, 492-500; 설교와 강연 1권, 388-390.

**기억절 :**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  
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  
가나니”(욥 15:25-26)

**서론 :** “사단의 반역은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우주에 대한 교훈이 될 것이었  
으며 자연계에 대한 영원한 증언이며 죄의 처참한 결과가 될 것이었다.  
사단의 규칙의 역사와 사람과 천사 모두에게 임한 그것의 영향은 신령  
한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  
조물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입증한다. 이리하여 반역의 처참한 실험은  
거룩한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방패가 될 것이었으며, 범죄의  
본성에 대해 기만당하는 데서 그들을 막아 주고, 죄를 짓는 데서 구해  
주며, 그 형벌로 고통당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이었다.”(1설교, 388-389)

## 사단의 적의

### 1. 사단의 적의는 어디에 있으며 그의 목적과 정신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어늘”(겔 28:1-2)

겔 28:12-15.

---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부조, 338)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요일 3:4)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쟁투, 492)

## 2. 사단의 정신과 바벨론의 정신이 동일함을 설명해보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계 13:6)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자 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4)

눅 10:15.

---

“죄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 됨은 물론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권력자는 안식일을 변경시켜서 제 칠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다 주일 중 첫날을 갖다 놓았다.”(화잇주석, 계 14:8)

## 사람에게 전이(轉移)됨

### 3.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고 그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정신이 사람들에게 전이(轉移)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

어”(롬 1:21-22)

막 7:21.

---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 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선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흑암의 왕국을 세운 자요, 그 왕국의 지도자요, 왕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를 원하였다.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두움 가운데서 부정과 속임수로 일을 해 내려오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왔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의 보좌를 세워놓고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를 그가 가로챈다(원고 33, 1911).”(화잇주석, 엡 6:12)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 사단은 자신을 숨기고 속임수의 휘장으로 감쪽같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다. 그들은 그런 교제가 그들에게 해를 주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끊임없이 품성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동화됨으로 그들은 더욱더 눈이 멀어간다.”(쟁투, 508)

#### **4. 사단의 정신을 가장 잘 묘사하는 한 민족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출 17:14, 16)

---

“여러해 전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해 버리라고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를 거스려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의 신들에게 맹세하기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게 하여 그의 명성을 꺾어 놓겠다고 하였다. …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포로가 되고 바로 왕의 손에 있었던 것같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낼 수가 없

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시하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괴로움을 줄 것이라고 맹세하였다(4영적 72, 73).”(화이트주석, 출 17:14-16)

##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함

**5. 아말렉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려 그들의 신들에게 맹세하였다. 이 정신은 바로 사단의 정신이었으므로, 이 민족을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고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신 25:17, 19)

“위대한 지도자는 임종 직전에 엄숙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신 25:1-17). 이 사악한 백성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와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출 17:16 난외)다고 선언하셨다.”(부조, 299)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단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쟁투, 422)

**6. 아말렉 족속을 도말하는 역사에서 젓 먹는 아이들과 우양 떼들까지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울왕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어떤 선고를 받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젓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삼상 15:2-3)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삼상 15:28)

삼상 15:7-9.

“하나님께서서는 즉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 죄악의 잔이 차서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된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은혜의 기간이 주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한 단계의 죄악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죄악으로 나아갔다.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반역적인 정신을 이어 받았으며, 그 부모들보다 더욱 악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징벌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원고 58, 1900).”(화잇주석, 샷 11:23)

“죄인들의 죄악의 잔이 가득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은 열국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신다. 하나님은 빛과 증거들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할 것이고, 유대인들같이 거절하면 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은혜받기를 거절하고 빛보다는 어두움을 택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택한 결과를 받을 것이다. … 주 하나님은 곧 진노 중에 일어나셔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되풀이 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당신의 심판을 부으실 것이다. 소돔 성 사람들의 마음같이 죄를 짓기로 마음을 완전히 굳힌 사람들은 그들처럼 멸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내와 자비를 가지셨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의 심판이 오래 지체되어 왔다는 그 사실이 심판이 시작될 때 그 벌을 경감시키지 않을 것이다(원고 145, 연대 미상).”(화잇주석, 사 26:21)

## 고의적인 범죄

**7. 아말렉 족속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대적하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성경에서 또 다른**

## 실례를 들어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민 15:32-36)

---

“광야로 돌아온 지 얼마 후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특수한 범죄에 해당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와 선고는 반역의 정신을 일으켰다. 백성 중의 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반항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아갔다.”(부조, 408)

“고자세의, 계획적인 죄지음. 이 죄는 하나님에 의해 현 시대만큼 심히 죄악된 것으로 간주된 때가 결코 없었다.”(행실, 249)

## 8. 다윗의 범죄는 크고 악한 것이었으나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파에서 벗어나겠나이다.”(시 19:12-13)

---

“다윗의 타락은 컸으나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 그는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눅 7:48). 다윗의 시편은 고범 죄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최고의 신앙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험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이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부조, 754)

“하나님의 영께서 율법의 밝은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인간의 심령에 변화가 생긴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성실하게

묘사해 줌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죄들을 버리게 되었다 그는 온유한 정신으로 권고를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하였다.”(1기별, 212)

## 바벨론의 멸망

### 9. 바벨론의 멸망은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하게 성취될 것인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국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계 18:21)

계 18:14; 사 47:11.

---

“바벨론은 한 큰 맷돌이 바다에 던진바 되는 것처럼 아주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연락과 풍류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온 세계는 다시 미혹과 속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요한계시록 강해, 207, 우라이아 스미스 저)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이 미국에서 폐지될 때가 오고 있다. 미국의 위정자들은 법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제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종교적 특권과 관련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 칠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압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미국에서 폐지된다. 국가적 배도는 국가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리뷰 1888. 12. 18).”(화잇주석, 계 13:16, 17)

### 10. 바벨론의 정신,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저항의식이 사라지고 율법의 원칙에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

시 51:1.

---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쟁투, 48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완전하게, 대가 없이 가납하셨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가 …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사 43:25, 26, 60:16).”(선지, 723)

## [상고할 말씀]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와 고백은 오늘날에도 크게 필요하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가납 받을 첫째 조건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견비와 심령의 통회로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도말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즐겨 낮추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주어진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의 고백은,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거리낌없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죄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경박하고 부주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죄의 가증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눈물과 슬픔이 섞인 고백, 심령의 깊은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백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시 34:18)고 말한다.”(5증언, 636)

#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들

[연구범위]

실물교훈, 152-163;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11-18.

**기억절 :**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엡 5:6).

서론: “하나님과 천사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품성의 계발을 지켜보고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사단의 간계를 저항하는 자들은 불에서 연단한 금처럼 나올 것이다. 유혹의 물결에 그들의 발이 쓸려가는 자들은 하와처럼,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워지고 그들의 무지와 좁은 양심을 벗어나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와처럼 그들은 슬프게도 기만당한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었으며, 하늘의 지혜를 연약한 인간의 판단력과 바꾸고 있었다.”(4증언, 584)

## 사단의 무기

1.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미혹할 때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왜 천사들에게 혼란을 주었는지 설명해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라”(요 8:44)

약 3:17.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꾀변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싸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부조, 41)

## 2.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바울의 표현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삼상 15:29)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 6:18)

시 33:6-9; 히 6:13, 17.

---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 능력은 창조자의 능력을 말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다. ... 만일 사람이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영문시조 1890년 10월 13일, E. J. 와그너)

## 불경한 호기심

3. 사단은 하와에게 어떤 불경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위험이 없는가? 불경한 호기심이 어떻게 불신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명해 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

딤편 2:14; 고후 11:3.

---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바로 이 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부조, 53)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부조, 54)

#### **4. 사단은 하와에게 어떤 불순한 야심을 갖게 하였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설명해 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5)

골 2:4; 엡 5:6.

---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호기심은 지식의 나무를 탐구하려 하였고 하나님의 도성 문을 열어 주는 참된 신성(神聖)의 과학에 비교해 볼 때

실제로 허무하고 덧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저들에게 가장 긴요한 열매를 따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 인간적인 야심은 저들 자신에게 영광, 자기 찬양 및 지배권을 안겨 줄 지식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불드심이 거두어지자 사단의 감화를 받았으며 거짓 교사 밑에서 저들의 교육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지 않으신 지식을 얻기는 하였으나 범죄의 결과만을 맛보았을 뿐이었다.”(부모, 12)

“루스벨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으며 천국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많은 천사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다. 사단이 그의 반역한 천사들과 더불어 추방당하였을 때에 반역과 이기주의에 대한 공작이 이 지상에서 계속되었다. 방종과 야심으로 이끄는 유혹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 시조의 타락을 완성시켰으며 그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인 야심과 이기적인 욕망의 방종을 충족시키는 일은 인류의 파멸을 증거 할 뿐이었다.”(부모, 32)

## 자기의 의(義)

### 5. 범죄한 인류의 조상에게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도록 하였는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7, 10)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러싼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별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써 저희 죄를 가리우려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가납되게 하려 했다.” (실물, 310-311)

## 6.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잎 사귀로 치마를 만든 것처럼 사단은 오늘날 어떤 옷을 만들도록 기만하고 있는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계 3:17)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 64:6)  
전 7:15.

---

“라오디게아인들은 영적으로 자기기만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그들이 매일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의 온유와 겸손을 매일 배울 필요가 있는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파산하여 전생애가 거짓임이 드러난다(편지 66, 1894).”(화잇 주석, 계 3:14-18)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증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히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원고 168, 1898).”(화잇주석, 히 10:19-21)

## 자신의 의에 대한 위험성

### 7. 예수님의 어떤 비유에서 자신의 의(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셨는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3-45)

“치장된 집(수리된 집)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내어 쫓았지만 그는 돌아왔다. 그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알았다. 자기의 의만이 그 곳에 살고 있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기의 의는 하나의 저주이며, 인간의 장식에 불과하다. 사단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용한다. 자기 찬양과 자기 아침의 말로 영혼을 장식하는 사람은 처음보다 더욱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을 속인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기초 위에도 집을 짓고 있다. 의식의 일환으로서 회중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 그 기도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지고 드린 기도이면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 주께서 선언하시기를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고 하신다. 그들의 모든 치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리된 집에는 사단이 한 때의 악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영혼 속에 그 자리를 잡고 속이는 일에 일조를 더한다.(원고 78, 1899).”(화잇주석, 마 12:43-45)

### 8. 가인의 제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어떤 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창 4:3-5)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부조, 72-73)

## 자기 합리화

### 9.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즉시 어떤 정신을 나타냈는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 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1-13)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 여자는 ‘뱀이 나를 꾀

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그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감화에 굴복 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축복까지도 그분께 불평할 이유로 삼는다.”(부조, 57-58)

## 10.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불순종했을 때, 대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변명하는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잠 12: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눅 16:15)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불순종함으로써 두려운 결과로 고 통당했다.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매우 작은 죄이며, 결코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무서운 죄악으로 취급하셨으며, 그들의 범죄의 화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느껴지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종 더 큰 범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사업상의 거래 행위에서 하나님의 공언하는 자녀들에 의해 거짓이 이루어지며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분의 불쾌함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분의 사업에 비난을 돌리게 하고 있다.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에 계속 빠지는 것은 사람을 악행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며, 죄의 악화된 성격을 누그러뜨려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전체적인 본성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신실하게

연구된다면, 그들은 영적인 사물에 난쟁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4증언, 311)

## [상고할 말씀]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 생활의 사소한 불충실은 묵과하실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시는 가운데 나타내셨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 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 받지 못한 채 하늘 책에 그대로 남겨 두는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 찬양을 받고 직위가 명예로울수록 그 같은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것이며 그들의 대원수 마귀의 승리는 더욱 분명하게 된다.”(부조, 202)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전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 데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소망, 311)

# 반역의 결과가 나타남 - 노아의 때

## [연구범위]

부조와 선지자, 90-104; 교회증언 5권, 361-368.

**기역절 :**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눅 17:26-28)

**서론 :**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 지에 대한 예증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인에게 선교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에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감화와 모본의 결과를 목격하였다.”(부조, 78)

## 반역의 결과

1.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사단의 통치의 결과가 이 지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주거민들은 이 지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단의 통치의 결과를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창 6:5-6)

“무한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시말까지를 보시며,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홍수 전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면서 하늘에 수립하려고 노력해 왔었던 통치의 결과가 예시된 것을 보았다. 홍수 전 세상의 강박한 죄인들 가운데서 그들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았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창 6:5).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충동과 상상은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사랑의 원칙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제지를 제거하고자 한 사단의 정책에서 기인된 무서운 부패의 실례이었다.”(부조, 78-79)

## 2. 사단의 반역에 온전히 동참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동안 은혜의 시간을 지정하여 주셨는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6:3)

.....

“노아 시대에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그들이 칭한 바 미신적인 두려움과 의의 설교자의 예언을 비웃었다. 그는 공상적인 사람으로, 환상가로, 인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으로 조롱당하였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120년을 주셨다는 것과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고 설교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했다. 그들에게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그들의 나쁜 행습을 고치며, 의로운 품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죄의 경향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반복되는 자기 현혹에 의해 강해졌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들어가도록 재촉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는 조소와 비웃음과 조롱으로 거절되었고,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졌으며 그들의 죄악된 마음이 선택한 경로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예언된 사건

을 막지는 못했다. 그 사건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진노는 컸으며 그것은 전체적인 파멸로 나타났다.”(4증언, 308)

## 셋의 후예들의 실패의 원인

### 3. 셋의 후예들이 왜 신속하게 타락하고 반역자들에게 동참하게 되었는가? 증언의 말씀은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창 6:1-2)  
고후 6:14-17.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하였으며, 셋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으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히 11:13, 16)였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가인의 씨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감화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 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창 6:2)었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부조, 81)

### 4. 악한 감화를 끼치는 불의한 자들과의 교제는 얼마나 위험한가? 어떤 권면의 말씀에 유의할 것인가?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

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사 52:11)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딤후 2:19)

계 18:1~4.

“민노라고 고백하는 신자들 중에는 땅바닥에 길게 늘어뜨려져서 길에 있는 나무 뿌리들과 잡다한 쓰레기들을 그 덩쿨 손으로 감싸쥐고 있는 포도나무로 잘 대표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면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들에다 손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 사물에다 두자. 땅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덩쿨 손들을 모두 다 잘라 버려야 한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이는 그것을 만지면 우리 자신이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과 연합하고도 순결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은 만약 사람이 타락한 자들과 연합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낮은 곳에서 들리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과 하늘의 사물에다 묶어 두어야 한다(리뷰 1900. 1. 2).”(화잇주석, 고후 6:17,18)

##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제도

### 5.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을 위하여 세우신 두 제도는 무엇인가? 노아 당시 사단은 어떤 제도를 크게 훼손시켰는가?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

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 하셨음이더라”(창 2:2-3)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1:27; 2:24)

---

“홍수 전 세계에 멸망을 불러들인 죄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세대는 노아 시대만큼이나 크게 세속화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마 24:38, 39)라고 말씀하셨다. … 결혼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법적이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분은 결혼 제도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으며 이것을 거룩함과 미로 옷 입히셨다. 그러나 이 지시는 잊혀졌고, 결혼은 왜곡되어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부조, 101)

## 6. 결혼제도를 무너뜨리는 일부다처의 방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특히 어떤 비열한 죄들이 성행했는가? 오늘날은 어떠한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싹라며”(창 4:1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고전 6:9)

롬 1:26-27.

---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

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부조, 91)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물로 홍수를 겪게 했으며, 소동을 불로 멸망시켰던 남색적인 행습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종말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고집을 오래 참아 오셨지만, 그들의 형벌은 너무도 확실하다. 세상의 빛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도록 하라.”(리뷰 앤드 헤랄드, 1884. 11. 10)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창조주에 대한 기억이 이 땅에서 거의 말살되어 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저희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악한 주민(住民)들을 쓸어버리셨다.”(실물, 178)

## 신속한 배도

### 7. 성경이 존재하지 않던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무지했는가? 사단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무엇을 숭배하도록 하였는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0-21)

시 115:4-8.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업적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있어서 그들만큼 유리했던 때는 그때 이후로 결코 다시없었다. 그리고 그 때는 종교적 암흑시대이긴 커녕 대광명의 시대였다. 온 세계는 아담에게서 교훈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그들의 교사로 모셨다. 또한 수세기 동안 세상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진리에 대한 무언의 증인이 있었다. 그들 천사가 지키던 낙원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곳으로 처음 예배자들이 나아왔다. 이 곳에

그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 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오신 곳도 이 곳이었다. …

에덴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들이었다.”(부조, 83-84)

## 8. 사단은 우상숭배를 통하여 인간들을 얼마나 타락시켰는가? 어떤 법칙에 의하여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인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롬 1:22-25)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시 115:8) 라고 말한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부조, 91)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재물의 신(神)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명망과 세속적 명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숭배하는바 된다.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적 속박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주의 것이 되고 받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정로, 44)

## 노아 때와 같으리라

### 9. 노아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왜 방주를 타지 못했는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히 11:7)

---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히 11:7)다. …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 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 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부조, 95)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홍수가 이르기 전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 널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 마침내 그들은 먼저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고 무례한 조소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 때 빛을 받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저항해 온 자들만큼 무모하며 그처럼 깊이 죄에 빠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세대의 사람들 모두가 우상 숭배자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의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공언하였다.”(부조, 95)

## 10. 노아 당시 홍수가 내릴 것이라는 현대기별에 대하여 사단은 어떤 기만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는가? 오늘날은 어떠한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벧 후 3:3-5)

“인자의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

딤후 4:1.

---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함으로써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부조, 96)

“홍수 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여덟 사람만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 120년 동안 의의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하였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도 그럴 것이다. …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벧후 3:3, 4)고 기록하였다.”(부조, 102-103)

## [상고할 말씀]

“땅의 깊은 곳은 주의 병기고인데, 고대 세계의 멸망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이 곳에서 나왔다. 땅에서 솟구쳐 나온 물은 하늘에서 내린 물과 합하여 멸망시키는 일을 성취하였다. 홍수 이래로 물뿐만 아니라 불도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자들로 그분의 능력 앞에서 떨게하며 당신의 공의로운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화염을 내뿜는 불타는 산들을 볼 때 그리고 용해된 광석들이 급류를 이루어 강들을 말리며,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들을 덮치고, 도처에 파멸과 황폐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공포에 싸였고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해 온 자들도 하

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이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다. ...

하늘의 번갯불과 땅의 불이 합칠 때에 산들은 용광로처럼 타며 무시무시한 용암을 쏟아내어 정원과 전답, 농촌과 도시를 덮칠 것이다. 강에 빠진 들끓는 녹은 물질은 물을 끓게 하여,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큰 바위들을 날려 보내어, 부서진 조각들을 땅 위에 흩어 놓을 것이다. 강들이 말라 버릴 것이다. 땅은 진동하고 각처에서 무서운 지진과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지상에서 멸절하실 것이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같이 의인들은 이 소동 가운데서도 보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 의지할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시 91:4)고 약속하신다.’(부조, 109-110)

# 바벨탑 건설자들

## [연구범위]

살아남는 이들, 72-74; 부조와 선지자, 117-124.

**기억절** :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2-14)

**서론** : “충실한 의의 설교자 노아는 홍수 후 350년간 살았고 셈은 500년간 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취급하신 역사에 정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이 진리들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부조, 120)

## 홍수 후의 반역

1. 사단은 노아의 자손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의 반역에 가담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는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창 9:11)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창 11:4)

---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써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은 얼마나 큰가!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arch)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시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부조, 106)

“시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부조, 119)

## **2. 사단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도록 미혹하는데 성공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1:28)

---

“충실한 의의 설교자 노아는 홍수 후 350년간 살았고 셈은 500년간 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취급하신 역사에 정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이 진리들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부조, 120)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수효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

고, 그분의 율법의 제지를 벗어 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 그들은 이 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부조, 118)

## 배도한 무리들의 동맹

### 3.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탑을 쌓기로 결정한 무리들의 동맹은 어떤 반역적인 목적과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창 11:1-3)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흠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 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써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부조, 119)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듦으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입안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부조, 119)

### 4. 노아의 후손들은 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대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사단은 그들에게 어떤 정신을 불어넣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1-23)

---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에 치욕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숭배로 어두워지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모조(模造)하게 하여 그들의 우상의 제단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다.”(부조, 120)

## 바벨론의 원조 바벨탑

### 5.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동맹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왜 탑 쌓는 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창 11:5-7)

---

“이 연합(동맹)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가져왔다. 시날 평지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였다.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라면 의를 추방하고 새로운 종교를 등장시키는 데에 막강한 힘을 발휘했을 것이며, 세상은 도덕이 없는 곳이 되었을 것이다. 그릇된 이론들을 가진 종교적 관념들의 혼합은 결과적으로 평화와 행복과 안전으로 가는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이 가설들과 그릇된 이론들이 완성되어 실

천에 옮겨졌더라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려는 데서 돌이키고 여호와와 율법은 무시되고 잊혀진 바 되었을 것이다. 처음의 대반역자의 감화와 주장에 도취된 고집 센 사람들은 그들의 계략과 악행을 막는 어떤 간섭도 거절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훈계 대신에 그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의 소원에 따라 불 붙여진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리뷰 1903. 12. 10).”(화잇주석, 창 11:3-7)

## 6. 이들이 쌓은 탑에 어떤 이름이 붙여졌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름은 현대 바벨론과 어떻게 일치되는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창 11:9)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대담성의 기념비인 그 탑을 파괴하셨다.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외고집을 오래 참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간계를 주목하신다. …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부조, 123)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계 14:8)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Babel) 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쟁투, 380)

## 현대 바벨탑

### 7. 오늘날에는 어떤 반역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여러 가지 유사한 실례들을 열거해보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욥 11:11)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어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사 44:9)

딤후 1:16.

---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推論)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그들은 몹시 주재님께도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를 비판하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며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한다. 그리하여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전 8:11)하다.

소위 그리스도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경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탑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가리킨다. 범법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능변을 토하는 입술에 사람들은 경탄하면서 집착한다. …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부조, 123-124)

## 8. 사단은 거짓 교리들을 이용하여 오늘날 민노라고 공연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혼란을 일으키는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행 20:30)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3-14)

---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발판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리에 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이론을 굳게 붙잡게 한다.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담대히 가르친다. 유전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따라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시간이 오류를 진리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요, 오류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진리의 나무를 기생 식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어서, 그 참된 기원과 성질을 보여준다. 오류라고 부르는 기생 식물도 그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뿌리를 둔 진리의 나무에서 빛나간 성질을 가진 것임을 드러낸다(편지 43, 1895).”(화잇주석, 마 15:9)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 하던 것과 꼭 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리뷰 1892. 12. 6).”(화잇주석, 계 18:1-5)

## 참된 연합과 거짓 연합

### 9.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거룩하지 못한 동맹체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들의 동맹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어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시 33:13-14)

계 14:8.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하신다(리뷰 1892. 12. 6).”(화잇주석, 계 18:1-5)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들과 싸우고 계신다. 그들은 요한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이혼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 백성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온 세상은 거짓 안식일을 옳다고 하고 주님의 안식일을 발로 짓밟음으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편지 98, 1900).”(화잇주석, 계 14:8)

## 10. 충성스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연합이 필요한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7, 19, 21-22)

---

“우리는 전해야 할 시험하는 기별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연합하라, 연합하라’ 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미혹하는 영과 교리에 주목하여 믿음에서 떠난 자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주목할 것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친절하게, 참되게 하고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원고 31, 1906년.”(3기별, 412)

“우리의 사업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멸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계약함으로 우리 자신을 결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의 요긴한 관심사에 관하여 의논하는 일에 결코, 결코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7증언, 107)

### [상고할 말씀]

“동정과 친절과 사랑이 결핍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할 수 없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슥 12:8), 다윗의 집은 여호와와 사자 같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형제들에 관하여 의심하는 모든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 심장과 심장이 조화를 이루어 고동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적 긍휼과 형제 우애가 훨씬 더 풍부하게

나타나야 한다. 나의 귀에는 ‘함께 연합하라. 함께 연합하라’는 말이 울리고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하고 거룩한 진리(현대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켜야 한다.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은 소멸되어야 한다. 하나의 경쟁 목표, 곧 누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닮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안에 자아를 가장 완전히 숨길 것인가 하는 목표가 다른 모든 목표들을 삼켜 버려야 한다.”(6증언, 42)

“그리스도께서는 연합을 호소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릇된 일들을 고집하는 것에 연합하기를 호소하지는 않으신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와 거짓되고 오류로 인도하는 교리 사이에 현격한 대조의 선을 그어 놓으셨다. 주님께서서는 죄와 완고한 고집을 있는 그대로 밝히 지적하신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회칠하듯이 악행을 가려주시지는 않으신다.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진실되고 성경에 기초를 둔 진리에 연합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원고 10, 1905년)”(1기별, 175)

#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

[연구범위]

치료봉사, 363-367; 부조와 선지자, 125-131.

**기억절**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히 11:8-10)

**서론** :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 노선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없었다.”(부조, 125)

##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신탁자

1.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 중에 사단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신탁자로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창 10:6, 8, 10)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일백 세 곧 홍수 후 이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1:10, 24, 27, 31; 12:1)

창 10:1-32; 11:10-32.

---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이라는 표현은 용감무쌍(勇敢無雙)한 사람을 가리키며 또한 ‘폭군’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는 말은 「70인역」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다. 니므롯은 제국주의의 창시자로서 그에 의해 사회는 부조 통치의 형태에서 군주 통치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는 사단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한 사단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SDA성경주석, 창 10:6-10 참조)

## 2. 바벨에서의 배교와 반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 나훔의 아버 테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수 24:2)

---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 신앙 가운데서 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인 감화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겼’(수 24:2)다. 그러나 참 신앙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아담, 셋, 에녹, 므두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信託)의 후계자가 되었다.”(부조, 125)

## 분리가 요구됨

### 3.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보존자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더라”(창 12:1, 4)

---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는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감화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였다.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

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하였다.”(부조, 125-126)

#### 4.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는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과정이 두 단계로 이행되었음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고향을 떠났으나, 어디에 정착하고 말았는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이백오 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창 11:31, 32)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창 11:31)에 살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옮겨갔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 곳까지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참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연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부조, 127)

“아브람의 부름이 두 단계에 걸쳐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름은 그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의 조상의 친족을 떠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란에서 그의 직계 친척들, 심지어 아버지의 집(참조 12:1)을 떠나라는 부름이었다. … 아브람은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부친의 지붕 아래서 살고 있었고, 동양의 예절에 비추어, 데라에게 그 가정의 머리로서 행동할 권한이 주어졌을 것이다. …

하란은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인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발리크(Balikh) 강 곁에 위치해 있다. 여행을 하란에서 중단한 이유는 그 지역의 매력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더 그럴 듯한 이유로는 데라가 연로해 병약해졌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다른 가족(나홀)들에게는 가나안이 아닌 하란이 영구적인 거처가 되고 말았다.”(성경주석, 창 11:31 참조)

### 지혜로운 결정

#### 5.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별을 보내셨는가? 그는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더라”(창 12:1-4)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외에, 오래 전에 죽은 하란의 아들 롯만이 부조(父祖)의 순례 생활에 동참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큰 무리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아브라함은 이미 동방에서는 부로 간주되는 허다한 양떼와 가축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종들과 가신(家臣)들이 있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조상들의 땅을 떠나고 있었으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창 12:5)을 함께 이끌고 갔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봉사에 대한 보수보다도 더 높은 보수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았다.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였다. 이들은 부조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그와 같이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창 12:5)다.”(부조, 127)

## 6.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선택은 오늘날 우리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창 15:6-7)

“복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 준다 그 교훈에 유의할 것 같으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많은 오류에서 구제받게 될 것이다. 복음은 사물들의 진가(眞價)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해 주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 곧 그 가치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준다. 이 교훈은 가정을 선택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 가정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이 목적을 선택의 지침으로 삼으라. 재물에 대한 욕망, 유행의 명령, 사회의 관습

등에 지배를 받지 말라. 단순, 순결, 건강, 진정한 부(富)를 얻는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치료, 363)

## 분리의 중요성

### 7. 특히 안락한 고향과 친지와 분리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 6:33-34)

벤전 5:7.

---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 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부조, 126)

### 8.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왜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고 하란에서 분리되고 말았는가? 우리가 악한 감화에서 떠나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암 3:3)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딤후 2:19)

미 2:10; 딤후 3:5.

---

“그의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고향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외에, 오래 전에 죽은 하란의 아들 롯만이 부조(父祖)의 순례 생활에 동참하기로 선택하였다.”(부조, 127)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4).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감화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 않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피하여야 한다.”(부조, 458)

## 빛의 전달자들

**9.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족들에게서 분리되는 경험은 현대진리를 전하는 기별 자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경험과 비교해보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 4:21-22)

마 10:37-38.

---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 빛을 전할 당신의 기별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

그 부조는 순종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전달자로서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는 순례자요 나그네가 되기 위하여 그의 본토와 집과 친척들과, 그의 초기 생애에 관련된 모든 즐거운 교제를 버렸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야기할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자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하여, 초기의 교제들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욱 요긴하다.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는 인간의 영향력에 지배되거나 인간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그의 이전의 교제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4증언, 523-524)

## 10. 우리는 악한 감화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인간과의 고립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9)

---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원칙적인 면에서나 관심사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구세주께서는 끊임 없이 인간과의 교제를 계속하셨는데 … 저들을 향상케 하고 고결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신 것이었다. 주님께서서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9)라고 말씀하셨다.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사람들 가운데 거하여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마치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세상이 부패하여 가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부모, 32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중에 아무라도 예배적 행사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위하여 은둔자(隱遁者)나 승려(僧侶)가 되어 세상을 피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산과 무리들 사이에 계신 생애-와 같아야 할 것이다. …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의무와 십자가를 지는 일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 … 그 사람은 기도의 제목(題目)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할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이지요 이기적이 된다.”(정로, 101)

## [상고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계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 족히 비교할 수 없’(롬 8:18)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고후 4:17)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부조, 126-127)

# 롯의 생애에서 배울 교훈

[연구범위]

부조와 선지자, 156~170; 교회증언 4권, 108~113.

**기억절** :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벧후 2:9).

**서론**: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마음이 점차 죄로 굳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를 느끼지 못한다. 탄원하시는 구세주께서 마침내 그에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호 4:17)고 선언하실 그 영혼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세상의 최악의 향락을 택하여 돌아선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부조, 165)

## 잘못된 선택

1. 아브라함과 롯은 왜 헤어지게 되었으며,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어떤 큰 실수를 범했는가? 롯이 소돔성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

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창 13:6, 10-11)

유 7.

---

“소돔에서 얻게 될 이득을 세속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롯은 그의 가정을 위해서 소돔 성을 택하였다. 그러나 자리를 잡고 재물을 좀 모으고 난 다음에 롯이 절실히 깨달은 것은 그가 가정을 꾸려야 될 그 지역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큰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이었다(리뷰 1882. 11. 14).”(화잇주석, 창 13:10, 11)

## 2. 롯의 실수와 그 결과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

엡 5:11, 15-17.

---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들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거나 보다 더 큰 번영을 바라므로 변창하는 어떤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 흔히는 경건을 계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교제를 이룬다. 방종한 도덕, 불신, 종교적 사물에 무관심한 분위기는 부모들의 감화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실례들이 언제나 젊은이들 앞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 애착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수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 …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은 것을 본다.”(부조, 168-169)

##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 3. 롯은 소돔에 살았으나 소돔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벧후 2:7-8)

---

“비록 롯이 소돔에서 살았을지라도 그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다.”(부조, 139)

“롯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곳에서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을 자신의 집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자리를 잡고 세상의 보화로 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정으로 택한 공동체의 도덕적인 표준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실수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소돔의 거민들은 부패하였다. 날마다 악한 대화가 그의 귀에 들렸고, 그의 의로운 심령은 폭력과 범죄로 상하게 되었으나, 이것을 막기에는 무력했다. 그의 자녀들은 이 악한 사람들처럼 되어 갔다. 왜냐하면 그들과 사귀므로 그들의 도덕은 비틀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얻은 세상적인 부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였으며, 그가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지불한 값어치만큼 가치가 없었다.”(4증언, 110)

### 4. 롯은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 살았으나, 그는 얼마나 고상한 믿음의 생활을 살았는가? 롯의 생애에서 배울 교훈을 말해보라.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라 롯이 간청하매 ”(창 19:1-3)

히 13:2.

---

“황혼녘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부조, 158)

## 부패한 감화

### 5. 롯의 생애에서 얼마나 놀라운 자아 희생적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롯의 생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창 19:6-8)

“소돔에서 낯선 사람들이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롯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대접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롯은 나그네들이 가까이 올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아 공손히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 주무시’(창 19장 참고)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의 후대를 사양하는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한 데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 곧 롯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또 마치 그들이 밤에 거리에서 경야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모르는 체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롯은 그들을 폭도들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더욱 결심하였다.”(부조, 158-159)

**6. 롯은 소돔에 살았으나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연약한 가족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부패한 감화에서 분리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토의해보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창 19:26)

창 19:30-35.

---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부조, 167-168)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의 부패시키는 감화는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부조, 168)

“소돔을 떠난 후 그의 딸들의 죄된 행동은 그곳에 있는 동안 있었던 악한 사귀의 결과였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혼동을 가져왔으며 죄악은 그들에게 죄처럼 보이지 않았다.”(6증언, 112)

## 마지막 자비의 호소

**7. 영원한 불에 의하여 멸망당한 소돔성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죄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

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 19:14)

눅 17:29, 30; 창 18:32.

“하나님께서서는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잘 아셨으나, 당신께서 처리하시는 일의 공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범법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분께서는 친히 가서 그들의 행위를 심사하고자 하셨으며, 만일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었다.”(부조, 139)

“소돔 사람들은 자비의 한계를 넘었으며, 멸망 직전에는 더 이상의 빛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평원의 도시들 구석구석까지 경고의 기별이 전해진다 한들,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들이 듣는다 해도 그들 중에 누가 그것을 믿었겠는가? 그들도 롯의 사위들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원고 19a, 1886).”(화잇주석, 창 19:12-14)

## 8.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가? 천사들의 재촉에도 롯은 왜 지체했는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던더라(창 19:15-16)

창 19:17-26.

“그리하여 롯은 나가서 자녀들에게 간청하였다. …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고 믿을 만큼 그들의 남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너무 멀리 떠났다. … 롯은 슬픔을 머금고 천사들에

게로 돌아와 실패한 사실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자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서 아내와 집에 아직 남아 있는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롯은 그의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의 마음을 거의 찢어지게 하였는데, 이는 그녀가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 롯은 이제 막 일어나려는 큰 재난으로 마비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끼던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비통하여 녀을 잃었다. 그러나 그가 지체하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의 손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도시 밖으로 끌어냈으며, 생명을 위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천사들에게 순종하여, 철저한 멸망을 받도록 정해진 부패한 소돔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하는 일에 롯은 얼마나 주저하였는가! … 롯은 부패한 환경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각이 무뎠고 그는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목적을 분별할 수 없었다. 그는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했으며, 이 같은 불신이 그의 아내의 생명을 희생시켰다.”(4증언, 110-111)

## 마지막 시대를 위한 경고

### 9. 세상을 사랑하는 롯의 처와 우유부단하여 지체했던 롯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가?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눅 17:30-32)

“그녀는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취급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하므로,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의 특별한 자비와 섭리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있게 되었다.”(4증언, 111)

“롯의 경우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한다. 롯은 악한 자들 중에 너무 오래 남아 있었으므로 자신과 두 딸만 구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과마져도 소돔에 거주하였으므로 도덕적으로 부패

하고 말았다.”(4증언, 112)

## 10. 롯의 생애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둘째 천사의 경고와 비교하여 생각해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벧후 2:6)

---

“말세에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계 17:18)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

shit뎀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의 경고가 있는 반면에 ‘안심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음성이 들린다. 하늘이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저희가 멸망당한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혔다.”(부조, 166-167)

### [상고할 말씀]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그는 그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의로운’ 사람

이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비루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번민하였다. 그는 마침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속 3:2)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령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여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숭배하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 놓았다.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는 얼마나 무서웠는가!”(부조, 168)

#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

[연구범위]

부조와 선지자, 331~335; 화이트주석 1권, 1100~1101.

**기억절 :** “너희는 눈을 드는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겔 20:7).

**서론 :** “요셉은 애굽에 있는 동안 죄와 참소와 부패한 감화 속에서 우상숭배 자들로 말미암아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그의 청렴함을 보존하였다. 그를 선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시험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 39:9)라고 말하였다. 예녹, 요셉, 다니엘은 무한하신 자의 힘을 의뢰하였다. 이것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여야 할 노선이다.”(영문시조, 1886. 11. 11)

## 그리스도의 대표자, 요셉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지식을 애굽 땅에 전하는 도구로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그는 종으로 팔려갔으나, 그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어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시

105:17-19, 23)

“바로는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시 105:21, 22). 애굽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과 관련을 맺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그를 만민을 위한 등대로 만들기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를 세계 최강 제국의 보좌 옆에 두시고 하늘의 지혜가 원근에 미치도록 하셨다. 그의 지혜와 정의, 그의 생애의 순결과 자애, 그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헌신을 통하여 요셉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였다.”(6증언, 219-220)

## 2.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재난을 극복하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는가? 그가 번영하고 형통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피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 1:1-3)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 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주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청년은 애굽 땅에 축복을 가져왔다. 이 사실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을 그의 종 요셉의 공로로 여겼고 그를 종이 아닌 아들로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 그 명예를 돌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러진 영광도 그들 위에 다시 반향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이다(청년 지도자 1897. 3. 11).”(화잇주석, 창 37:28, 36)

## 애굽 땅으로

### 3. 야곱은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어떤 두려움

## 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심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창 46:3-4)

창 46:1-2.

---

“이 하나님의 권고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혹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음을 말해준다.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몹시도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결과가 얼마나 나빴었는지(12:14-20), 그리고 전에 한 번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26:2)을 기억하였다. 그의 여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그 부조의 마음속의 심각한 의문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여행에 대하여 승인을 표하셨고 전에 하신 약속들을 다시 확증해 주셨다. 전에 batan 아람으로 향해 갈 때와 같이 이번 애굽을 향해 떠날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과 그의 번영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 가지만 약속의 땅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증의 말씀을 받았다.”(화잇주석, 창 46:3)

## 4.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살도록 계획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피롭게 하리니, 네 자손은 사 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창 15:13,16)

---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같이 무수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나 아직은 선민(選民)들이 서서히 증가될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예언된 바와 같은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 땅은 강대

한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사대(四代)까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곳에서 무수한 백성으로 발전되려면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저들 중에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자를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산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을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부조, 232)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었고, 주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때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하였다. 하나님은 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다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추방해 버리고, 도말해 버리는 일들이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이와 같이 취급하신다. 어떤 일정한 은혜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나라들과 도시들과 개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하지만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해질 때에는 심판이 임한다(리뷰 1893. 5. 2).”(화이트주석, 창 15:16)

## 분리된 백성

### 5.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어디에 살도록 계획하셨는가?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높은 지위에 앉힐 수도 있었으나 어떻게 그들에게 조언했는가?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나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창 46:31,33-34)

“요셉은 그의 형들 중 다섯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에게서 그들이 앞으로 살 땅에 대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

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 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다. 왕은 ‘땅의 좋은 곳’ 고센 땅을 제공했다.”(부조, 233)

**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자손들을 애굽 땅에 살도록 하셨으나, 그들에게 속하지 않도록 고센 땅 분리된 곳에 살도록 계획하셨다. 애굽은 영주할 땅이 아니요 잠시 체류할 땅임을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분명하게 언급하였는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창 46:28)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오 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창 47:1-2)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관개가 잘되고 비옥한 나라의 한 부분이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그들의 수효가 신속히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었으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 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부조, 232)

“왕은 총리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 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다. 왕은 ‘땅의 좋은 곳’ 고센 땅을 제공했다.”(부조, 233)

##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세가 됨

**7.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의 성취는 애굽에서부터 그 성취를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는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창 22: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출 1:7)

---

“요셉이 애굽 나라에 끼친 공헌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국토의 일부분을 그들의 거주지로 허락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과세도 면제되고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양식도 후하게 공급받았다. 왕은 다른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파멸되어 가고 있는 동안 애굽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중재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요셉의 시정(施政)으로 왕국이 부요하게 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왕실의 총애를 입게 하였다.”(부조, 241)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는 벌써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셉의 돌봄과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총애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속히 온 나라에 퍼졌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특징을 지켰으며, 풍습이나 종교에 있어서 조금도 애굽인들과 같은 점이 없었다.’”(부조, 241-242)

**8.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세가 되었는가? 애굽 땅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보았으나 어떻게 하였는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마 4:16)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출 1:8-9)

---

“애굽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토록 은혜롭게 보내신 빛을 거절한 것이었다(청년 지도자 1897. 4. 15).”(화잇주석, 출 1:8)

“바로는 하나님의 신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그는 완고하고 감수성이 무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인식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현현(顯現)은 더 큰 빛을 거절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는 수단이 되었다.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들은 바로 왕이 말한 것같이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순종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빛을 거절할 때 마다 마음은 더욱 강박해지고 이해력은 더욱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담대하게 거절하게 된다(원고 3, 1885).”(화잇주석, 출 4:21)

## 말세를 위한 교훈

**9.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셨다. 바로왕은 술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모방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출 7:11)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출 7:22)

---

“악의 왕자가 술객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적을 나타내는 데는 더 깊은 목적이 있었다. 사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고 있는 종의 멍에를 깨뜨리는 모세가 인간 가족을 압제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예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 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표적이 행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단은 그의 권세를 크게 염려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랐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며 자기의 권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임으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을 그들로 거절하게 만든다.”(부조, 264)

**10.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땅으로 분리시키고자 하셨다. 이 역사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하여 생각해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2, 11)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헌신과 세상에서의 분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다 같이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다. 주님께는, 세상의 것과, 그분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그분 자신에게 거룩하게 하신 것과는 친히 분리시키는 벽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과 특성은 독특하며, 그들의 전망(展望)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특성이 그들을 다른 모든 백성들과 구별 지어준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의 몸이다. 그들은 그 몸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분리되도록 고대 이스라엘에게 내린 동일한 명령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는 바뀌지 않았다. 이 마지막 날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고대 이스라엘의 여행과 매우 유사하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되, 특별히 6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라. …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1증언, 283-284)

## [상고할 말씀]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 받을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 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 한다.”(부조, 239-240)

## 바벨론에서의 구원

[연구범위]

선지자와 왕, 452~463; 화잇주석 2권, 1040.

**기억절** :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임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報讎)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렘 51:6).

**서론** : “오랜 유랑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돌아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다. 어떤 이들은 듣고 배우기로 선택하였고, 어떤 이들은 고통 중에서 구원을 발견하였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귀환할 남은 무리로 계수 될 그들을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산’에 심기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로 비유하였다(겔 17:23, 22). 이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고레스의 조서로 귀환한 사람들이었다. …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이 하나님의 호소에 감동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선지 599).”(화잇주석, 겔 17:22, 23)

### 유다의 배교

1. 유다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는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 유다 땅에서 행해진 가증한 일들을 말해보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 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겔 8:7-11)

겔 8:1-6.

“시드기야의 치세 제 6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여호와와의 집 문 안과 안뜰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계시로 나타내 보이셨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겔 8:10) 곧 새긴 우상과 그린 우상의 방들-이 모든 것들이 놀란 선지자의 눈앞에 신속히 연달아 지나 갔다.

백성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성전 마당의 신성한 지역 안에 있는 밀실 속에 갇다 둔 우상의 조상(彫像)들 앞에서 분향하는 것이 보였다. 유다 사람들은 저희가 이교도의 행습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 이 땅을 버리셨다’고 참람되이 선언하였다.

선지자가 보아야 할 더욱 ‘큰 가증한 일’이 있었다. 밖에서 안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선지자는 ‘여인들이 …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여호와와의 전 안뜰 안 … 여호와와의 전 문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이십오인이 여호와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태양에 경배하’(겔 8:13-16)는 것을 보았다.”(선지, 448-449)

## 2. 당시 성전에서 행해진 참람된 일을 열거해보라. 큰 배도자에 의하여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어떤 죄악과 우상들이 편만한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

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판과 제단 사이에서 약 이십오 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겔 8:13-16)

---

“큰 배도자는 길 표지판을 바꾸어 거짓 표지판을 세웠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나는 나의 대표자, 곧 불법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안식일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겠다. 나는 그 날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도말해 버릴 것이다. 그 대신 나는 하늘의 신임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날을 세울 것이다. 그 날은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표가 될 수 없는 날이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제 칠일에 부여한 거룩성을 이 날에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나의 대리자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높일 것이다. …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을 나의 안식일 편에다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화잇주석, 단 7:25)

“재물의 신(神)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정로, 44)

## 배교의 결과

### 3. 유다의 배교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대하 36:17-20)

“나라는 정복당하였고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혀 갔고 그의 두 눈은 뽑혔고 그는 바벨론에 도착한 후 비참하게 죽었다. 4세기 동안이나 시온산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던 아름다운 성전을 갈대아 사람들은 아껴 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대하 36:19)였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함락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랜 포위의 공포에서 벗어났으나 또 다시 칼에 죽임을 당할 뿐이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나라의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방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반역자로서 처단되었다.”(선지, 459)

#### 4.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경고 곧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셨는가?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기 직전 유다의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계를 어떻게 하였는가?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십삼년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렘 25:3-4)

렘 25:5-11.

---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서 저희가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기를 거절한 교훈들을 역경을 통하여 배워야 하였다. 이 거룩한 파숫군의 명령에는 어떤 항소도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 있는 법계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계를 굴속에 감추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서 숨겨졌으며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그 법계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이래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

하였다.”(선지, 453)

## 남은 무리들의 시련

### 5. 포로로 잡혀간 무리들 중 유다의 신실한 남은 무리들은 어떤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날과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던라”(단 1:3-5)

---

“그들이 필생의 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의 말을 배우도록 하고 또 삼년 동안 그 나라의 귀족들에게 허락되는 좀처럼 얻기 힘든 교육의 편익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들에게 우상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 주고 날마다 우상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의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했다.”(선지, 480-481)

### 6. 히브리 청년들의 믿음은 처음에 어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였는가? 이들이 당한 시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단 1:8, 10)

“이국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결정적인 품성의 시험이 이르러왔다. 그들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줌으로 왕은 그들의 복지에 대한 자기의 은총과 염려를 표시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숭배에 바쳤던 것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그 같은 충성을 표하는데 가담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 음식을 먹는 체하고 그 술을 마시는 체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교(異敎)를 옷 입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향락과 방탕에서 기력을 약화시킴으로 감히 육체적·지적·영적 발전을 저해하려 하지 아니하였다.”(선지, 481-482)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 식욕의 방종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이런 시험에다 내어 놓았다면 우리의 식욕을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는가?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구주께서 식욕에 대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려고 거의 6주일간을 금식하셨다.”(화인주석, 마 4:1-4)

## 풀무불의 시험

### 7. 히브리 세 청년들에게 어떤 최고의 시험이 주어졌는가?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육십 규빗이요 광은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단 3:1)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6-18)

“정한 날이 이르러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은 군중이 두라 평지에 운집하였다.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전군중은 ‘금 신상에게 … 엎드리어 절하’였다. 다사(多事)한 그날에는 흑암의 권세들이 현저한 승리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금 신상의 예배가 그 나라의 국교인 우상숭배와 영구적인 연관성을 갖게 될 것 같았다. 사단은 그것으로 이교의 모든 나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포로를 바벨론에 대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되도록 정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권세의 상징인 우상에게 절한 것은 아니었다. 절하고 있는 군중들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한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아무 것에도 절하려 하지 아니하였다.”(선지, 506)

## 8.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금 신상의 본질은 언제 또 다시 재현될 것인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넣으리라 하매”(단 3:5-6)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5)

단 1:1; 계 13:18.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런 거룩성이 없고 보통의 날인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 마치 옛날 이방 나라의 왕이 히브리 포로들에게 말했던 것같이 행정 권력이 용의 음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거짓 안식일 경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련과 박해가 임할 것이다. 권력은 모든 거짓 종교가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마치 바벨론 왕이 음악의 힘과 권력의 과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려 했던 것같이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사단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보려고 생각해 낸 이 방법이 그 우상에게 사람들을 경배케 하지 못하면 무서운 풀무불이 그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같이 이제도 그리할 것이다. 교권은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기 위하여 그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교주의와 투쟁할 때에 나타났었던 것과 같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인즈 1897. 5. 6).”(화잇주석, 계 13:16, 17)

## 바벨론에서 불러냄

### 9. 고대 바벨론이 멸망 받은 날 밤의 상태를 묘사해보라. 영적 바벨론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이 때를 즈음하여 어떤 기별이 울려 퍼져야 할 것인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던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단 5:2-3)

계 14:7.

“복음을 순수한 그대로 전파하는 일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인간의 명령을 대담하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다. 그 결과로 주님의 큰 도덕적 포도원은 거의 전부 황폐되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였다. 오류와 미신의 어두움이 참 신앙의 지식을 말살시킬 것처럼 위협적이었다.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랑의 시기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이 오랜 냉혹한 핍박의 시기 동안 실제로 속박 중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 세상 각처에서 수많은 남녀들이 계시자 요한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선포될 것이라고 예언한 하늘이 보낸 기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7)라는 기별에 응하고 있다.”(선지, 714)

## 10. 때가 차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는가? 세상에 전파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은 무엇인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 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사 48:20)

계 18:4.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악의 세력과의 오랜 싸움 중 가장 어두운 시기에 위로를 받았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노력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때의 사건을 지배하고 계셨으며 그 후 이어진 세월 동안 당신의 백성들은 과거를 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하였다. 여호와께서 교회에 보낸 기별은 다음과 같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렘 30:10, 11, 17).”(선지, 474)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쟁투, 604)

### [상고할 말씀]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계 14:6)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

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리고 있는 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실물, 228)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례는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은 문자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가장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였다. 교리와 격언 그리고 인간의 유전에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져 버렸고, 잠잠케 되어 버렸다. 제사장들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것들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신비롭게 만들어 버렸다. 경쟁 관계에 있는 교파들간의 논쟁의 소리는 이해력을 어렵게 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올바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화이트주석, 사 60:2)

# 고대 바벨론과 현대 바벨론

[연구범위]

교육, 175~178; 각 시대의 대쟁투, 570~573, 580~581.

기억절 :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시  
 91:9, 10)

서론 :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결국은 붕괴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 중에  
 명백히 예언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실 때에 주신 예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별이 있다. ‘나 주 여호  
 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  
 러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겔 21:26, 27).

이스라엘에서 벗겨진 왕관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순으  
 로 계속 넘어갔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어귀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준다.”(교육, 178-179)

## 세계적인 통치영역

### 1. 고대 바벨론제국의 위세와 통치영역은 어느 정도였는가?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단 2:37-38)  
단 4:20~22.

---

“여호야김 치세의 초기는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찼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여호와와의 말씀이 막 성취되려고 하였다. 북방에서 오랫동안 안 최상 권을 가졌던 앗수르인의 권세가 더 이상 열국을 통치하지 못하였다. 유다 왕이 그 세력을 헛되이 의지하고 있던 남방 애굽도 얼마 후에 결정적인 저지를 받았다.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세력 곧 바벨론 제국이 동부에서 일어나 신속히 다른 모든 민족들을 뒤덮고 있었다.

불과 몇 년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내리는 당신의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었다.”(선지, 422)

## 2. 현대 영적 바벨론의 위세와 지배권은 얼마나 광범위 한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계 13:3; 17:5)

---

“한 때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언은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 준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계 13:3)리라고 한다. 치명적 상처를 받은 타격은 1798년에 발생한 법왕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그 일이 있는 후 선지자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불법한 자’(살후 2:8)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쟁투, 579)

“전 세계에 걸쳐 그 모든 가지들을 뺀고 있는 로마교는 하나의 큰 조직체를 이루어 법왕정의 지배 아래 그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구상 각 나라에 있는 여러 백만명의 교도들은 법왕에게 충성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국적과 정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높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들은 비록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로마교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로마교의 이익과 배치되는 모든 서약은 취소하게 된다.”(쟁투, 580)

## 바벨론의 특성들

### 3. 고대 바벨론제국의 특성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대하 36:17, 19)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단 4:30)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성공 여부는 받은 권력의 사용 방법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 거룩하신 순찰자께서는 각 사람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사 45:5)라고 하셨다. 옛적 느부갓네살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단 4:27)라고 한 말씀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의 교훈이 된다.”(교육, 174)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높이신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단 4:30)라고 말하였다. 바벨론은 백성의 보호자가 되는 대신에 교만하고 잔인한 압제자가 되었다.”(교육, 175-176)

### 4. 현대 바벨론의 특성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현대 바벨론의 교만과 잔혹성을 말해보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계 17:6)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계 18:7)

계 18:24.

---

“오늘날 로마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다. …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매우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한 때가 있었다. … 그러나 오늘날에 표현되고 있는 의견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법왕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 교회가 중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 그 교회의 지배의 특징이 되었던 포학과 모순으로 오늘날의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두려운 잔인성을 그 시대의 미개함에 돌리고 근대 문화의 영향이 그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쟁투, 563)

“오늘날 로마교는 그의 무서운 잔학성의 기록을 변명으로 덮어 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을 대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차림으로 나서지만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나간 시대에 존재했던 법왕교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가장 암흑한 시대에 고안된 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 그는 왕들과 군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던 동일한 교만과 뻔뻔스런 주장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다. 그의 정신은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도 잔인하고 포학하다.

법왕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이다(살후 2:3, 4).”(쟁투, 571)

## 바벨론의 독주

**5. 고대 바벨론의 우상숭배의 교리는 모든 열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무엇을 믿고 신뢰하였는가?**

“바벨론은 여호와와의 수종의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

사고 인하여 미쳤도다”(렘 51:7)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술을 가지고 …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고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사 47:12, 13)

---

“거의 모든 형태의 고대 마술과 요술은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되어 있다. 강신술을 행하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통하여 장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죽은 자에게 의견을 듣는 이 풍습은 이사야의 예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사 8:19).

죽은 자와 교통한다는 이 같은 신념이 이교의 우상숭배의 초석을 놓았다. 이교의 신들은 죽은 영웅들의 신격화된 영이라고 믿어졌다. 그리하여 이교의 종교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이다.”(부조, 683-684)

## 6. 현대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어떤 독주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독주에 취하여 있는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중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계 17:2, 4)

---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과 짝하므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감화를 미치고 있다.”(쟁투, 388)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深淵)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쟁투, 588)

## 야망

### 7. 고대 바벨론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사 47:5, 7)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단 2:38-39)

사 13:18-20.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내다보셨고 만국의 흥망을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둘째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에게도 역시 시험의 기간이 주어 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

만일 모든 지상 왕국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바벨론 나라의 통치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면 그들이 여호와께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를 강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괴롭고 난처할 때에만 하나님을 저희 피난처로 삼았다.”(선지, 501)

“하나님께서서는 국가나 개인이나를 물론하고 모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율법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신 4:6; 32:47)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된 축복이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또 그와 동일한 정도로 천하

에 있는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에게 보증되어 있다.”(선지, 500-501)

## 8. 현대 바벨론이 세우고 있는 야심찬 꿈은 무엇인가? 이들의 야망은 잠시 동안이지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계 18:7)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4-15)

“소위 그리스도교계는 중대하고 결정적인 행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교황권의 본을 따라 양심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자신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은 이 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계 18:3-7; 17:13, 14에서 인용됨]. ‘저희가 한뜻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위대한 일치, 곧 사단의 세력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의 자유, 곧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에 대하여, 과거에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 의식과 예법에 순응하기를 감히 거절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을 때 나타냈던 것과 같은 전제적이고 압제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3SM, 392(1891년)”(사건, 136)

## 바벨론의 최후

### 9. 성경에는 고대 바벨론의 최후가 급작스레 이르러 올 것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으며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

“바벨론이 줄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렘

51:8, 29, 30)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단 5:30-31)

---

“히브리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파멸될 상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들에게 미래의 사건들을 나타내보이셨을 때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 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숩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의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었다.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히 자고 깨지 못하리라.’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낸은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선지, 531-532)

## 10. 현대 바벨론의 최후에 관하여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 시간에 망하였도다”(계 18:14, 16, 17)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석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계 18:5-6)

계 17:16.

---

“이 예언에서 알려 주는 시대의 바벨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계 18:5, 4)도록 불려냄을 받아야 한다.”(쟁투, 604)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 시간에 망하였도다’(계 18:3, 11, 15-17).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어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했다.”(쟁투, 653-654)

## [상고할 말씀]

“하나님은 바벨론을 책망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계명을 무시해 왔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옛세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칠일에 쉬셨으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다른 날과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며, 오는 세대에 그의 백성들로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죄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 됨은 물론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권력자는 안식일을 변경시켜서 제 칠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다 주일 중 첫날을 갖다 놓았다. 그리고 개신교계는 교권이 낳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거룩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그녀의 음행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들과 싸우고 계신다. 그들은 요한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이혼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 백성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온 세상은 거짓 안식일을 옳다고 하고 주님의 안식일을 발로 짓밟음으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편지 98, 1900).”(화잇주석, 계 14:8)

## 불법의 비밀

[연구범위]

사도행적, 264~268; 각 시대의 대쟁투, 49~60.

**기억절 :**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 7:25)

**서론 :** “주께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을 명백히 보여 주셨지만 큰 배도자는 길 표지판을 바꾸어 거짓 표지판을 세웠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나는 나의 대표자, 곧 불법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안식일을 허물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겠다. 나는 그 날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 나의 대리자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높일 것이다. ...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화이트주석, 단 7:25)

### 큰 배도

1. 사도 바울의 예언에 의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사도들 당시 교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였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살후 2:3, 7)

---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법왕권의 확립을 초래할 큰 배도를 예언하였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살후 2:3, 4)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계속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살후 2:7)다고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는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왕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불법의 비밀’은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비밀리에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나중에는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더욱 공공연하게 그의 기만적이요, 참람된 일을 진척시켰다. 이교의 관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쟁투, 49)

## 2. 큰 배도의 시작은 교회가 매우 작은 일에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모본은 무엇이었는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눅 4:5-7)

---

“양보와 순응주의적 정신은 교회가 이교 아래서 견뎌낸 맹렬한 박해로 말미암아 한동안 방지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박해가 그치고 그리스도교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순성을 버리고 이교의 제사장이나 방백(方伯)들의 교만과 허식(虛飾)을 따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시켰다. …

이교와 그리스도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리라고 예언된 ‘죄악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거짓 종

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탑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는 시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 천하 만국과 그 영화를 보이면서 만일 암흑의 왕의 최상권만 인정해 주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겠노라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람된 유혹자를 견책하시고, 그를 쫓아버리셨다.”(쟁투, 49-50)

## 타협

### 3. 이교와 타협한 명목상의 교회가 최상권을 잡을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참람된 일을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 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4)

단 7:25.

“법왕은 보편 교회(Universal Church)의 볼 수 있는 머리이며, 세계 각처에 있는 감독들과 목사들에 대한 최상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로마교의 주요 교리의 하나이다. 더욱이 법왕에게는 하나님의 직함들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는 ‘주 하나님이신 법왕’이라고 불리워 오고 있으며 절대 무오의 존재로 선포되어 왔다(부록 1, 2 참조). 그는 전 인류의 숭배를 요구한다.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암시조차 하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법왕의 최상권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교훈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법왕은 찬탈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할 권세를 가질 수 없다.”(쟁투, 50-51)

### 4. 사단은 교회와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시도하였는가? 예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항상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그분께서는 사단이 도전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영원한 진리를 방패로 삼아 대응하셨다. 사단의 모든 암시를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의 이해와 능력으로 대항하셨다. 그러므로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찬탈적인 법왕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성경의 진리를 가리워 버리거나 없애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로마교는 이와 같은 논리를 채택하였다. 수백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다. …

오류(誤謬)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단은 마음놓고 활약하였다. 예언은 법왕권이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단 7:25)라고 하였다. 그 일의 실행은 지체되지 않았다.”(쟁투, 51-52)

## 율법에 대한 적의

### 5. 사단의 적의는 이교와 타협하고 배도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사단은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어떤 날로 만들어 버렸는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 7:25)

“이교에 양보하는 정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한층 더 무시하는 길을 열었다. 사단은 헌신하지 못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넷째 계명에 손을 대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옛적부터 내려오는 안식일을 폐하고, 그 대신에 이교도들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지켜온 그날을 축일로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초기에는 공공연하게 시도하지 않았다. 처음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참 안식일을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돈독하였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었으므로 율법의 신성성을 열렬하게 옹호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대단히 교묘한 방법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요일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일로 삼았다. … 사단은 자기가 목적인 사업을 성취할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가혹한 부담이 되게 하여 그날을 준수

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와 같이 … 그릇된 것을 이용하여, … 일요일을 즐거운 축일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한편 …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요, 우울하고 슬픈 날로 삼도록 그들을 이끌었다.”(쟁투, 52-53)

## 6.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의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어떻게 존속되어 내려오고 있는가? 오직 성경만을 믿노라고 하는 개신교계에서도 넷째 계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 7:8-9)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마 15:7-9)

“이리하여 이 큰 배도자는 마침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살후 2:4)게 스스로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 넷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로서 계시되었으며 그런 까닭에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되신다. 그리고 제 칠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적해 주는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기에 관한 성경상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날을 그와 같이 높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교의 제도로써 일요일을 준수하게 된 단서(端緒)는 이미 바울의 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살후 2:7)에서 찾을 수 있다”(쟁투, 53-54)

## 큰 저주

### 7. 이 땅에 저주가 임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교

## 계안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저주 아래 있는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사 24:4-6)

---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민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간의 싸움, 성경에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에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 많은 목사들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많은 교수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쟁투, 582-583)

## 8. 이 세상은 물론이요 교회가 타락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시 119:51, 5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롬 2:23)

시 11:3.

---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경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불순종을 거두기 위하여 불순종의 씨를 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과해진 제재가 완전히 제거되면 미구에 인간의 법률도 무시될 것이다. …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누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인가? …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웃의 소유를 약탈하게 될 것이므로 강한 자가 제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생명 그 자

체도 존중히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결혼 서약도 더 이상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룩한 방호벽이 되지 못할 것이다. ...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교리는 이미 사람들의 도덕 관념을 약화시키고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들어올 수문을 열어 놓았다. 불법과 방탕과 타락은 견잡을 수 없는 조수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다. 사단은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 에까지 그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쟁투, 585)

## 마지막 쟁투

### 9. 하나님의 율법이 유린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누명이 씌워질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례를 들어보라. 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엘리아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나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왕상 18:17-18)

“이세벨은 가뭄을 여호와의 형벌로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절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굳게 결심한 이세벨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모든 참상의 원인이 엘리아에게 있다고 탄핵하였다. 엘리아가 저희 예배의 형태를 대적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던가? 만일 엘리아가 그의 주장을 버린다면 저희 신들의 노여움은 진정되고 그들의 어려움은 끝날 것이라고 이세벨은 주장하였다.”(선지, 126)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치는 다시 한 번 높이 들릴 것이다.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흐를 것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의 장막 같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유행의 세력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최대의 위기의 때에 엘리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키실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와, 지존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준엄한 견책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명

하신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연합을 담대히 탄핵할 것이다.”(선지, 186, 187)

**10.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탄핵이 주어질 것인가? 로마법왕권 시대에서 그 실례를 찾아보라. 사단의 상투적인 기만들을 말해보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히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바로 그 일을 충성된 천사들의 소위인 것으로 비난하였다. 그와 똑같은 기만정책이 로마교회의 역사에 나타났다. ... 로마의 지배 아래서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악행자로 고발당하였다. 그들은 사단과 동맹했다고 선고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과 자신들에게까지도 극악한 범죄자들로 나타나게 하고자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오늘날도 그러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멸하고자 할 때 그는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들로,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자들로 비난받게 할 것이다. ...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지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쟁투, 591-592)

## [상고할 말씀]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거짓을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것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쟁투, 592)

# 바벨론의 독주를 마신 개신교계

[연구범위]

교회증언 1권, 282~287; 각 시대의 대쟁투, 382~387.

**기억절** :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골 2:8).

**서론** :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짓이 진리에 매우 많이 섞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 매일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참과 거짓, 그리고 죄와 의를 식별할 것이다(원고 43, 1907).”(화잇주석, 골 2:8)

## 개신교계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독주”

1. 오늘날 개신교계가 바벨론으로부터 전수받은 유독한 교리들을 말해보라. 교회 안에 거짓 교리, 곧 오류가 범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0-12)

“바벨론은 유독한 교리들 즉, 오류의 포도주를 육성해왔다. 이 오류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는 영혼의 본질적인 불멸성, 악인의 영원한 고통, 베들레헴 탄생 전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날보다도 주일 중 첫날을 옹호하고 높이는 것 등이다. 이것들과 및 유사한 오류들이 여러 교회에 의하여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계 14:8)라고 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진노는 거짓 교리에 의해 야기된다. 왕들과 대통령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때에 그들은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 거짓되고 사단적인 이단설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분노를 발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념비를 짓밟도록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목사, 61-62)

## 2. 개신교계에서 전해지고 있는 보편적인 구원설, 곧 만인 구원설은 많은 영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가르침인가? 이런 가르침의 배경은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겔 18:24.

---

“우리는 우리 시대에 비치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가증한 독주를 마시게 된다.

또한 영원 지옥설을 반대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영원한 지옥 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근본적으로 불멸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인류는 최종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

린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두려운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자 위협하는 것이며 글자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죄인이 비록 이기적 쾌락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고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육신적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악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기에 담대하게 해준다.”(쟁투, 536-537)

## 거짓 복음들

### 3.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복음이 오늘날 어떻게 인기를 얻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 진리와 어떻게 다른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겔 18:20; 33:13)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롬 9:27)

막 13:13; 빌 2:12; 히 10:26, 27.

---

“한번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항상 은혜 중에 있다-와 같은 그런 것은 없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그 문제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취급되어 있다. 악한 일을 행한 어떤 사람의 역사를 기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저는 불의의 샅을 사랑하다가 ...’(벧후 2:15-20 인용). 여기에 사도가 경고를 발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 즉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 성경은 한 때 생명의 길을 알고 진리 안에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배도하고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림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회심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한번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선택의 교리(the doctrine of election)를 지지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는 분명한 다음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겔 18:21; 33:13). … 그들은 진리를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원고 57, 1900).”(화이트주석, 엡 1:4, 5)

#### **4. 또 다른 위험한 철학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과 능력을 계발하기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성화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사 8:20; 눅 11:28.

“만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기만하여 그들이 위대하고 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 그들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할 수 있는 힘이 그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어떤 초월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고 탁월한 주권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사단의 목적은 성취된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늘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추방당한 것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주재님께도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기뻐한다. 사단은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 그 자신의 멸망이 분명했듯이 그 사람의 멸망도 분명한 것을 안다.”(1증언, 294)

## **사단의 정책**

#### **5. 종교개혁으로 탄생된 개신교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맺어진**

## 결혼 서약을 깨뜨렸는가? 교회들이 어떤 방법으로 결혼 서약을 깨뜨렸는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호 2:19-20)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약 4:4)

렘 3:14.

---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므로 그리스도께 성실하지 못한 것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죄와 그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문구로 묘사되어 있다.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겔 16:8, 13-15, 32). …

신약 성경도 그와 유사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과 짝하려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한다.”(쟁투, 381-382)

## 6. 개신교회들이 핍박 속에 살던 때는 순결하였으나, 자유를 얻은 이후 그들은 신속하게 세상과 연합하여 타락하여 가고 있다. 사단은 이들에게 어떤 정책을 폈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

“그러므로 사단은 온건한 정책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일찍이 성경의 교리들을 더럽혀 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타락시킨 관습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심을 억누르면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대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을 배

풀어 주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류의 관습들에 얽매이도록 이끌었다. 그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가 유리한 위치에 놓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은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세상 친구들과 열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막아 주는 한결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차로 능력을 상실해 갔다.”(초기, 226-227)

“오늘날 교회는 핏박의 불길이 타오르던 때에 있던 구별된 특별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는가! 어찌하여 가장 순수한 금이 변질되었는가! 나는 교회가 항상 교회 특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더라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되었을 것임을 보았다.”(초기, 227)

## 거짓 신앙부흥

### 7.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교역자들은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어떤 설교들은 하고 있는가? 또 어떤 거짓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15:8)

“백성이 모이는 것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좃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겔 33:31-32)

“교역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 그들은 감히 예수와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육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저들 대부분은 부유하므로 교회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그들에게 적당한 곳은 교회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 편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라는 일이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인기 있고 영화로운 것으로 보이게 된다. 흔히 사람들은 신앙을 공언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존귀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판이하게 배치된다. 그분의 교리는 세상과 결코 합하여질 수 없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을 버리기 마련이다. 타협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그들은 계획을 세워 놓고 이름만을 공언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수행하게 한다. 순전히 쾌락을 위한 허황된 이야기들이 일반화되어 거리낌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선자들과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 교회와 연합하였다. 만일 진리가 본래의 순결함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즉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초기, 227-228)

## 8. 많은 교회들은 사단의 걸작품인 무엇에 의하여 기만당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강신술에 미혹당할 것인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딤후 4:1)

.....

“큰 기만자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이다.”(쟁투, 524)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쟁투, 561)

##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

## 9. 강신술의 미혹은 현대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도 위험이 될 것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144,000인)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떤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계 13:13-14)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1-12)

.....

“나는 이 기만적(강신술)인 사업이 신속하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 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고 명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우기 위하여 묶어 놓은 단이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위엄이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단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욱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

나는 천사에게 남은 자는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명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저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진 단처럼 혹은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있는 것 같았다.”(초기, 262-263)

## 10. 이처럼 교회들이 배교하여 사단의 정책에 동조하게 될 때 어떤 경고가 그들에 주어질 것인가? 큰 빛을 받은 교회에게 어떤 경고가 되는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 14:8)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계 18:2-3)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살후 2:9-11)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쟁투, 389)

“계명을 지키는 재림신도들은 특수하고 고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요한은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그들을 보고 이같이 묘사하였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영원한 진리의 고상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음란과 간음을 행하면, 그 죄악은 내가 그 이름을 언급한 바 하나님의 법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보다 열 배나 더 중하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 계명을 어기므로 하나님을 특별히 욕되게 하고 진리를 모욕하게 된다.”(2증언, 450-451)

## [상고할 말씀]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싯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마음이 점차 죄로 굳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를 느끼지 못한다. 탄원하시는 구세주께서 마침내 그에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호 4:17)고 선언하실 그 영혼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세상의 죄악의 향락을 택하여 돌아선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부조, 165)

# 공중을 날아가는 둘째 천사

[연구범위]

초기문집, 237~252; 각 시대의 대쟁투 387-403.

**기억절 :**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  
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  
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계  
18:2-3)

**서론 :**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  
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소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  
들 중에는 성전을 두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  
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이다(리뷰 1892. 12. 6).”(화잇주석, 계  
18:1-5)

## 세상의 종말이 가까움

1. 세상의 종말이 가까움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어떤 기별을 보내셨는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당시 교회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 14:8)

---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고 하리 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 들지는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다.”(쟁투, 389)

## 2. 첫째 천사의 기별로 인하여 실망을 당한 무리들은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아야 했는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3-4)

겔 12:21-25, 27, 28.

---

“기다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시는 분께서 멀리 각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들이 실망할 것을 미리 아셨으므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고 즐거워하였다. 만일 인내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굳게 잡으라는 그런 부분의 성경 구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런 시련기에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역시 재림신도들의 경험을 잘 설명해준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당신의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세계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지적하셨다.”(쟁투, 393)

## 실망이 예견됨

### 3. 열 처녀의 비유에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어떻게 실망과 지체됨이 예견되어 있는가?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마 25:1-5)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 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쟁투, 393-394)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예기했던 시일이 지나갈 때 실망과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낸다. 이 불안한 시기에 피상적이고 반신반의의 사람들의 마음은 곧 동요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활동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 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었다.”(쟁투, 394)

### 4. 1844년 10 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윌리엄 밀러의 기별은 어떻게 새로운 힘을 얻어 전파되기 시작했는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어

## 면 말씀의 성취를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마 25:6-7)

---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 1844년 여름, 곧 재림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때까지의 중간 기간에서 이 기별은 성경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되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2300주야의 기점(起點)이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해초(3월 22일)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계산하면 2300주야는 바로 1844년 가을(10월 22일)에 마치게 된다(부록 27 참조).”(쟁투, 398-399)

## 새로운 국면

**5. 구약의 표상적 절기인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표상이었다면,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밀러는 대속죄일은 어떤 사건으로 오해했으며 재림운동은 얼마나 큰 힘으로 전개되었는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단 8:14)

레 23:27, 28.

---

“모세의 규례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그날에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하여 버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레 16:9-34 참조). 그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나타나사 죄와 죄인들을 멸하여 버린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2300주야가 그 해 가을에 마쳐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는 기다리는 시기와 조는 일이 있는 후에 신랑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 역시 이미 열거한 예언과 표상에 의한 증거와 일치되었다. 그들은 그 확실성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무수한 신자들이 ‘밤중 소리’를 외치게 되었다.”(쟁투, 399-400)

## 6. 밀러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 때는 재림의 시기는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외쳤던 자들처럼 큰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마 25:6)

---

“이 운동은 조수와 같이 각 곳으로 퍼져갔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것은 멀리 떨어진 벽촌에 이르기까지 퍼져 가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깨우쳤다. 떠오르는 햇빛 앞에 사라지는 이른 아침의 서리와 같이 광신자들도 그와 같은 선포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신자들은 그들의 의심과 의혹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으며, 희망과 용기로 마음에 활기가 넘쳤다. 이 운동은 흔히 경험하는 바와 같이 흥분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력이 없음으로 생기는 극단적인 일은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견책의 기별을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들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었다. 거기에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구별해 주는 특징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쟁투, 400-401)

##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7. 하늘 성소의 정결은 지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정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늘 성소는 무엇에 의하여 더럽혀지는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서 어떤 실제적인 정결사업을 이루었는가?**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힘이니”(민 19:20)

레 20:3.

---

“밀리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 때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歡呼聲)도 없었다. 그것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올릴 때를 위하여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의견의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있었다.’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경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가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하였다.’”(쟁투, 401)

**8.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도록 인도했는가? 오늘날 재림신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없다면, 과연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는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욘 2:13)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찢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속 12:10)

---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처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았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으며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밤중 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을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하였다.”(초기, 238)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始終)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르었다.”(초기, 258)

## 예언은 성취됨

**9.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는가? 실망한 그들의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경험과 비교될 수 있는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요 20:13)

---

“예수께서는 기쁨으로 기다리던 무리들이 바라던 대로 세상에 불을 내려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을 보았다. 예언된 기간은 1844년에 끝나고 예수께서 그날들 끝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나는 다시 기다리다가 실망한 무리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믿음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으며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일을 재검토하여 보았으나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 때는 왔는데 저들

의 구주는 어디 계시는가? 그들은 그분을 잃어버렸다. 나는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했을 때 실망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했다.”(초기, 243-244)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것들은 아주 적절한 때에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시켰다.”(초기, 245)

## 10.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사 52:11)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미 2:10)

고후 6:17.

---

“나는 예수께서 그의 오심을 거절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천사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정한 자들에게서 이끌어내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이 기별에 순종한 자들은 자유롭게 풀려 나와 연합하였다. 거룩한 빛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희생할 뿐 아니라 모든 세상 재물을 포기하고 시선을 하늘로 향해서 저들의 사랑하는 구원자를 보고자 열망했다. 거룩한 빛이 그들 주위를 비추었으며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엿보였다. 예수께서는 그의 천사들에게 가서 저들을 격려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저들에게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기다리는 자들이 아직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시련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과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기별을 되풀이해서 보내사 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과오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임을 보았다.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

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초기, 249-250)

## [상고할 말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시간에 예수님을 뵈지 못하게 되어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언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주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를 몰랐다.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셨는가? 아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셨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갔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자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실수했으나 하나님 편에서의 실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성취되었으나 인간은 이 지구가 예언된 기간이 끝날 때 정결케 될 성소라고 오해했던 것이다. 무너진 것은 인간의 기대였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 곳에 들어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속죄를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셨다.”(초기, 250-251)

## 외방선교사업

**12째 안식일에 읽고 13째 안식일에 드려집니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계 14:6)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리고 있는 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설명되어 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일터이며 모든 인간 가족은 그들의 회중(會衆)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바라신다.”(실물, 228-229) 아멘!